

#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과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Values,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and Sexual Culture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s' Marriage Intentions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 교수 서종수\*\*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조 교수 신이나\*\*\*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eo, Jong-Soo  
Institute for Education Innovation, D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hin, Yi N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초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가치관과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가치관은 보수적 가치관과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둘다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인식 역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문화 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은 대부분 다섯가지 중 한 가지도 채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성관련 대화 빈도는 보통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경험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혼의향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낮을수록,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연애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성문화, 결혼의향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values,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cultural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s' marriage intentions in the Busan area. For this research purpose, we used data from a survey on youth sexual culture in Busan. We found that conservative values and misogynistic value perceptions, which are subfactors of gender equality values, appeared at levels below the median.

\*이 연구는 이진숙(2021)의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임.

\*\*주저자: 서종수(icepause@daum.net), <http://orcid.org/0000-0003-2358-6588>

\*\*\*교신저자: 신이나(happy-2i@hanmail.net), <https://orcid.org/0009-0001-3419-5235>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were also reported at a level below the median. Among the sexual culture characteristics, most of the experience of requesting housework was found to have not been requested for less than one out of five items, and the frequency of sex-related conversations with friends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e median.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dating experience, and adolescents' marriage intentions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In addition, gender equality values,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cultural characteristics all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marriage intentions. Specifically, more conservative values corresponded to, lower perceptions of misogynistic values, and highe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corresponded to, more experience with requesting housework. Furthermore, a higher frequency of sex-related conversations, and more adolescent dating experiences, corresponded to higher marriage intentions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policy measures to improve adolescents' marriage intentions.

**Key words:** adolescent, gender equality values, sexual culture, marriage intention

## I. 서론

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이 인구가 대체 가능한 수준(2.1명) 이하를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말에는 유럽의 전 지역 북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확대, 20세기 후반에는 아시아의 대부분, 중남미, 중동 등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전중환, 2012)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소 속도가 빠르며 탄력성이 적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이삼식·정경희, 2010),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0년 들어 서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은 인구의 감소를 유발하며 동시에 사회의 고령화를 야기하므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며, 나아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복지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일정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사회 문화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홍성희, 2021). 한국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2005년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 가족의 형성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생각하고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결혼적령기의 대상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으로 발달할 청

소년에 대한 접근 역시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은 왕성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이성교제가 나타나는 등,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관심을 억압시키고, 금기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주요 이슈는 성적 혹은 학업적 성취로(서중수, 2018), 대학진학이라는 중요한 과업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억압되듯, 성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역시도 억압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결혼에 대한 의향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홍성희, 202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오세비와 박상철(2018)은 30세 전후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 정책만이 소수 있을 뿐이며, 미래에 결혼 가능성이 높은 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도미향(2011)은 청소년시기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한 나라의 출산 추세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의향은 몹시 중요하다.

최효미(2017)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의향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는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용인되는 체계 안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도미향(2011)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쉽지 않으며,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서인규와 이연실(2020)은 청소년의 출산에 대한 의식은 부모됨의 동기나 인식수준, 결혼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오세비와 박성철(2018)의 연구에서 자녀관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 중 자녀의 필요성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나와 황명진(2019)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가치에 찬성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수록 결

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영과 방은령(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16.9%는 자녀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결혼은 출산과 밀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건으로서 결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수진(2005)은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선택이 높아지지만,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해도 결혼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오세비와 박상철(2018)은 연령이 낮을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사회적 영향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신호영·방은령, 2008).

현재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므로, 청년 혹은 대학생, 결혼적령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확대하여 살펴본 결과 일련의 선행연구(진민정·정혜은, 2010; 도미향, 2011; 오세비·박성철, 2018; 김상윤, 2021; 최슬기·최새은, 2022)에서 결혼의향은 성별, 연령, 가치관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문화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나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선별하여,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결혼의향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성별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의 연구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의 성평등 가치관과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 결혼의향은 어떠한가?
  - 둘째, 청소년의 성평등 가치관과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진숙(2021)<sup>1)</sup>의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1,200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 347명을 제외한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85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은 9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성평등 가치관은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 57.5%로 나타났다. 요인 1의 설명력은 39.7%로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등의 7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1을 보수적 가치관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825로 나타났다. 요인 2의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는 직장, 학교,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 '우리사회는 여성혐오가 심각하다'의 2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2를 여성혐오적 가치관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734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가치관,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인식은 단일 문항으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음'으로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청소년의 성문화특성

청소년의 성문화 특성은 가사노동요청경험, 성관련대화 빈도, 연애유무로 파악하였다. 가사노동요청경험은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신뢰도 값의 문제로 인하여 영유아 돌보기를 제외한 5개 문항(부엌일, 집안 수리, 장보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청받은 경우=1, 없는 경우=0으로 조사되었으며, 신뢰도 값은 .676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결혼의향

청소년의 결혼의향은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SPSS WIN 27.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및 각 요인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성평등 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이진숙.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2021 [데이터 세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3-05-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86-V1.0>.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57.6%(491명), 여학생은 42.4%(362명)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학생이 57.2%(317명), 고등학생이 50.9%(434명), 학교 밖 청소년이 11.9%(102명)로 나타났다.

〈표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	여
중학교 재학	162(19.0)	155(18.2)
고등학교 재학	289(33.9)	145(17.0)
학교 밖 청소년	49(5.7)	53(6.2)
전체	491(57.6)	362(42.4)

#### 2.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 결혼의향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특성, 결혼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도출하였다. 왜도는 절대 값 3 미만, 첨도는

절대 값 8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포함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며(Kline, 2015), 각 변수들이 왜도 3.0, 첨도 8.0을 넘지 않아 모두 허용치 이내의 값을 나타냄으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수적 가치관은 1.93점으로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0점 보다 낮은 1.93점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보수적 가치관 자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은 2.61점으로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0보다 조금 낮은 2.61점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은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의 경우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0보다 조금 낮은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수준은 보통이다(3점)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문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요청 경험은 총 5개 활동에 대해 .71점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1개 이하의 가사노동요청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성관련 대화 빈도의 경우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0보다 낮은 2.2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친구와 성과 관련하여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 경험의 경우 연애하고 있거나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청소년의 53.6%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 결혼의향 정도

		M(SD)	첨도	왜도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1.93( .75)	.687	.076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2.61(1.10)	.212	-.668
	양성평등 인식	2.87(1.14)	-.594	.687
성문화특성	가사노동요청경험	.71( .28)	-1.005	.313
	친구와 성관련대화 빈도	2.59( .28)	1.083	1.014
	연애경험 있음(N/%)	457(53.6)		
	결혼의향	3.43(1.21)	-.394	-.704

〈표 3〉 청소년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224	.052	.138	4.296***	.994	1.006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160	.037	-.146	-4.371***	.923	1.084
	양성평등 인식	.132	.035	.124	3.723***	.922	1.084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581	.140	.135	4.149***	.968	1.033
	성관련 대화빈도	.102	.031	.108	3.262***	.938	1.066
	연애유무	.340	.080	.140	4.229***	.938	1.066

R<sup>2</sup>=.132, F=21.419\*\*\*

\*p<.05, \*\*p<.01, \*\*\*p<.001

결혼의향은 3.43점으로 5점 척도의 중앙 값 3.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결혼의향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모델의 설명력은 13.2%로 나타났다( $R^2=.132$ ,  $F=21.419$ ,  $p<.001$ ).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우리사회가 여성혐오적 사회인식이 낮을수록( $\beta = -.146$ ,  $p<.001$ ),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 $\beta = .140$ ,  $p<.001$ ), 보수적 성관념을 가질수록( $\beta = .138$ ,  $p<.001$ ), 가사노동요청경험이 많을수록( $\beta = .135$ ,  $p<.001$ ),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beta = .124$ ,  $p<.001$ ), 성관련 대화를 친구들과 나눌수록( $\beta = .108$ ,  $p<.001$ )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 결정요인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의 모델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R^2=.087$ ,  $F=7.647$ ,  $p<.001$ ).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성관련 대화를 친구들과 나눌수록( $\beta = .158$ ,  $p<.001$ ),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 $\beta = .146$ ,  $p<.001$ ), 가사노동요청경험이 있을수록( $\beta = .108$ ,  $p<.05$ ),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beta = .095$ ,  $p<.05$ )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6.6%로 나타났다( $R^2=.166$ ,  $F=11.587$ ,  $p<.001$ ). 구체적으로 여성혐오적 사회 인식이 낮을수록( $\beta = -.184$ ,  $p<.001$ ), 보수적 성관념을 가질수록( $\beta = .160$ ,  $p<.001$ ), 사회를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beta = .155$ ,  $p<.01$ ), 가사노동요청경험이 많을수록( $\beta = .132$ ,  $p<.01$ ),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 $\beta = .131$ ,  $p<.01$ ), 성관련 대화를 친구들과 나눌수록( $\beta = .109$ ,  $p<.05$ )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013	.066	-.009	-.196	.927	1.079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012	.051	.011	.232	.909	1.100
	양성평등 인식	.087	.040	.095	2.162*	.975	1.025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431	.180	.108	2.390*	.918	1.089
	성관련 대화빈도	.140	.041	.158	3.423***	.890	1.124
	연애유무	.327	.102	.146	3.215***	.911	1.097
$R^2=.087$ , $F=7.647$ ***							

\* $p<.05$ , \*\* $p<.01$ , \*\*\* $p<.001$

<표 5> 여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378	.117	.160	3.225***	.951	1.052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210	.064	-.184	-3.274***	.748	1.338
	양성평등 인식	.193	.070	.155	2.752**	.736	1.359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605	.225	.132	2.691**	.976	1.024
	성관련 대화빈도	.105	.048	.109	2.189*	.942	1.061
	연애유무	.334	.127	.131	2.636**	.950	1.052
$R^2=.166$ , $F=11.587$ ***							

\* $p<.05$ , \*\* $p<.01$ , \*\*\* $p<.001$

2) 학교급에 따른 결혼의향 결정요인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본 결과(〈표 6〉 참조), 모델의 설명력은 8.0%로 나타났다( $R^2=.080$ ,  $F=4.522$ ,  $p<.001$ ). 구체적으로 연애행험이 있는 경우( $\beta=.172$ ,  $p<.05$ ),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beta=.136$ ,  $p<.05$ ), 가사노동요청경험이 많을수록( $\beta=.118$ ,  $p<.0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은 15.9%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혐오적 사회인식이 낮을수록( $\beta=-.207$ ,  $p<.001$ ), 연애행험이 있는 경우( $\beta=.131$ ,  $p<.01$ ), 가사노동요청경험이 많을수록( $\beta=.131$ ,  $p<.01$ ), 보수적 성관념을 가질수록( $\beta=.131$ ,  $p<.01$ ), 성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beta=.131$ ,  $p<.0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R^2=.166$ ,  $F=6.960$ ,  $p<.001$ )(〈표 8〉 참조). 구체적으로 보수적 성관념을 가질수록( $\beta=.320$ ,  $p<.001$ ), 성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beta=.288$ ,  $p<.01$ ), 가사노동요청 경험에 많을수록( $\beta=$

〈표 6〉 중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098	.094	.060	1.043	.904	1.106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024	.064	-.021	-0.370	.883	1.133
	양성평등 인식	.142	.058	.136	2.423*	.945	1.058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463	.218	.118	2.120*	.951	1.052
	성관련 대화빈도	.059	.051	.066	1.147	.899	1.112
	연애유무	.378	.127	.172	2.981*	.891	1.123
$R^2=.080$ , $F=4.522^{**}$							

\* $p<.05$ , \*\* $p<.01$ , \*\*\* $p<.001$

〈표 7〉 고등학생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191	.073	.120	2.612**	.930	1.075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223	.051	-.207	-4.381***	.883	1.133
	양성평등 인식	.090	.051	.084	1.778	.885	1.130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558	.211	.120	2.647**	.960	1.042
	성관련 대화빈도	.099	.045	.102	2.209**	.926	1.080
	연애유무	.380	.116	.151	3.267**	.921	1.086
$R^2=.159$ , $F=10.260^{***}$							

\* $p<.05$ , \*\* $p<.01$ , \*\*\* $p<.001$

〈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beta$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549	.148	.320	3.705***	.978	1.022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198	.107	-.170	-1.848	.868	1.152
	양성평등 인식	.163	.105	.139	1.552	.908	1.101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요청 경험	1.071	.407	.230	2.628**	.953	1.049
	성관련 대화빈도	.301	.094	.288	3.198**	.899	1.112
	연애유무	.034	.244	.012	.141	.962	1.040
$R^2=.305$ , $F=6.960^{***}$							

\* $p<.05$ , \*\* $p<.01$ , \*\*\* $p<.001$

.230,  $p < .01$ )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문화 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성평등 인식과 성문화 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 성관련 대화 빈도, 연애유무로 나타났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보수적 가치관은 정적 영향을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은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문화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학생은 양성평등 인식과 연애유무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보수적 가치관, 성관련 대화빈도, 연애유무가 정적 영향을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보수적 가치관과 성관련 대화 빈도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의 결혼의향 결정요인 정리 표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양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	+		+	+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	-	-		-	
양성평등 인식	+	+	+	+		
성문화 특성	가사노동 요청경험	+	+	+	+	+
	성관련 대화 빈도	+	+	+	+	+
	연애유무	+	+	+	+	+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가치관은 보수적 가치관과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둘 다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인식 역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문화 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은 대부분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도 채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성관련 대화 빈도는 보통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 경험은 절반을 조금 넘는 53.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의 결혼의향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낮을수록,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연애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결과, 남학생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요청 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낮을수록,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연애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요청 경험이 많을수록, 연애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연애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성문화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요청 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양성평등 가치관 중 보수적 가치관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선영(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의현(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박선영(2022)의 연구결과 전통적 가족태도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현(2022)은 젠더규범태도를 보수적 성관념에 해당하는 문항 들로 측정된 결과,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은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선아(2018)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아(2018)의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 적대적 성차별은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의 차이와 측정 개념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아(2018)의 경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대상과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

적대적 성차별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기에,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인식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sping-Anderson & Billari(2015), 김상윤(2021), 박선영(2022), 정의현(2022)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sping-Anderson & Billari(2015)는 성 평등한 사회로 변화할 때 “더 많은 가족(more family)”으로 복귀할 것이며, 이는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의미한다. 실제 김상윤(2021)의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선영(2022)의 연구에서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현(2022)의 연구에서도 젠더불평등을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측정된 결과, 여성의 결혼의향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결혼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김상윤(2021), 원아름(2015)과 박선영(2022)의 연구에서 이성(연애)교제 관계의 질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신아(2018)의 연구결과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차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현(2022)의 연구에서 결혼의향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영과 방은령(2008)의 연구에서 결혼이미지의 경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제력의 비율이 각 9.3%, 8.4%에 불과한 반면, 대학생은 14.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박선영(2022)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경우, 연애라는 것은 결혼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차후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인 반면, 청소년들에게는 연애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낭만적 개념으로, 결혼의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재 결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파악하고, 결혼의향을 결정 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 학교급별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 그리고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요인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따라서 결혼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전략 및 지원정책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양성평등 가치관 및 양성평등 의식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치관의 변화는 쉽지 않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결혼과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내 기술·가정교과를 통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을 낮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가족부 전달체계인 가족센터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결혼 그리고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을 낮추는 작업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증진과 같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지역내 여성시설 및 인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개선과 형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익광고를 통한 다양한 개입 및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첫째, 가정 내에서 다양한 기사노동 참여요청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학업이라는 과업 외에 모든 기사노동 및 활동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높으나, 본 연구결과 기사노동 참여는 성별,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결혼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정생활은 기사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사노동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가족공동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노동 참여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이지선·조혜정, 1999). 기사노동은 단순한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가족의 관계적 측면이 존재한다(이지선·조혜정, 1999). 또한 기사노동의 의식과 역할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태도, 가치관, 그리고 기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은혜·김순미, 2008, 이기영 외, 2011). 오민지(2021)는 남편의 기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의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부터 경험하는 기사노동은 결혼의향을 높이고, 기사노동의 일상화는 출산의향을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성은 정책 계획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관한 내용들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정책 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좀 더 개방적인 성문화, 자유롭게 성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21)의 연구에서 성의식 및 성태도, 몸이미지, 성평

등성, 성주체성 등의 문항은 모두 3.5점 이상의 값을 나타냈지만, 성 개방성은 중학교 남학생은 2.56점, 여학생은 2.43점, 고등학교 남학생은 2.79점, 여학생은 2.76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고민 의논 상대의 경우 고민없음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것은 의논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방적인 성문화, 자유롭게 대화하고 나누는 성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방적인 성문화를 통해 이성교제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성평등 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그리고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 가치관이나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을 형성하거나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실제 이정하, 박정윤과 유나나(2017)의 연구에서 비혼의 선택 이유로 부모에 대한 심리경험의 영향(가부장적 역할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양성평등 의식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다만 결혼의향이 결혼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결혼의향 변화와 결혼의향이 실제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양성평등 가치관이나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과 같은 변인들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독립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에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매체를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로서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 가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정보의 오남용이나 왜곡된 정보의 습득과 해석 등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혼동 등이 유발되고 건강의 위협과 장애의 유발하며, 현실구분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서종수, 2016).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인식, 성문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하여 건강한 양성평등 가치관을 정립하고 양성평등의를 형성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상윤(2021).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광역시 30~44세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3) 민은혜·김순미(2008). 남녀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6(6), 33-48.
- 4) 박선영(2022).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2000년대 이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서인균·이연실(2020). 부모됨 인식이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22(1), 7-24.
- 6) 서종수(201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 친구, 부모,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4), 629-652.
- 7) 서종수(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595-611.
- 8) 신희영·방은령(2008).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5(3), 95-113.
- 9)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21). 제5차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10)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오세비·박성철(2008). 후기여자청소년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6(3), 279-300.
- 12)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기영·이현아·김외숙·이연숙·조희금·이승미·김주희·한영선(201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5(2), 103-128.
- 14) 이삼식·정경희(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16) 이정하·박정윤·유나나(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83-214.
- 17) 이지나·황명진(2019).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71, 117-151.

- 18) 이지선 · 조혜정(1999).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11-125.
- 19) 이진숙(2021).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20) 전중환(2012). 현대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97-110.
- 21) 정의현(2022). 청년 여성의 젠더관계인식 유형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조선아(2018). 청년기 남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24) 최슬기 · 최새은(2022). 청년들이 인식하는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 *KDI School of Pub Policy & Management Paper*.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323504> or DOI : 10.2139/ssrn.4323504.
- 25)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2017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26) 홍성희(2020).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4(1), 1-19. DOI : 10.22626/jkfrma.2020.24.1.001.
- 27) 홍성희(202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41-52. DOI : 10.22626/jkfrma.2021.25.2.004.
- 28)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29) Kline, R. 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York: Guilford publications.

- 투 고 일 : 2024년 03월 22일
- 심 사 일 : 2024년 04월 03일
-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04월 23일